



Himalayas

최동열 CHAETONGYULL

히말라야 Himalayas

이번 전시는 최동열 작가의 대표작 '히말라야 연작'을 한 데 모은 전시로, 그의 히말라야 시리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전시다. 80년대 뉴욕 이스트빌리지에서 작가 생활을 시작한 최동열 작가는 40년 넘게 작가생활을 이어오며, 특유의 강렬한 색감과 생명력을 특징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신표현주의 대가로 불리게 된다. 90년대 초 티베트, 네팔 방문을 시작으로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히말라야를 직접 오르며 이번 연작을 완성하였다.

6년 넘게 히말라야 산맥의 잔스카(Zaskar), 라다크(Ladakh), 안나푸르나(Annapurna)를 오르고 또 오르며, 그의 작품은 원색의 강한 대비에서 백색과 원색의 강한 대비로, 나아가 설산 그 자체로 강렬한 표현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나아간다. 히말라야 사막에 피는 야생장미는 피고지고를 반복하며, 눈 사이로 드러난 히말라야의 산맥은 야생의 뼈대를 드러내듯 위용을 떨친다. 히말라야에서 마주한 강인한 생명력은 고스란히 그의 화폭에 담겨, 히말라야의 설산, 이를 빛낸 순백의 여성 누드, 그곳의 생명으로 표현된 히말라야 시리즈는 이전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담아낸다. 평생에 천착하던 생명의 표현을 송고미까지로 승화시키며 히말라야 시리즈는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 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가장 근작인 <A bird with Dhaulagiri glacier>, <A bird with Machapuchare> 작품을 처음 선보인다. 이는 최동열 작가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대가 중의 하나인 중국 명청시대의 팔대산인 八大山人 작품 속 새의 모습을 히말라야로 옮겨온 작품으로, 시공간을 넘어선 생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는 이들 역시 성찰의 자리로 초대한다.

최동열 Chae, Tongyull

최동열 작가는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고 작가로 활동을 시작한다. 최동열 작가는 미국에서 뉴올리언스에서 표현주의 그룹 'Idists'을 결성하였으며, 80년대 뉴욕의 이스트빌리지(East Village)에서 활동한 유일한 한국인 작가로 장-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키스 해링(Keith Haring) 등의 작가들과 동시대에 활동하였다.

또 몬트리올 브롱프먼센터(Bronfman center, Montreal), 사치 앤드 사치 개관전(Saatch & Saatch in NYC) 및 뉴욕에서 여러 전시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1990년부터 티베트, 네팔 등에서 직접 거주하며 작업을 하였고, 2011년부터 히말라야를 등반하며 '히말라야'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최동열 작가의 작품은 그와 동세대인 한국의 단색화 미술과 달리, 역동적인 노마디즘적 표현주의적 작품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여 주목을 받았다.

주요 전시 갤러리

몬트리올 브롱프먼센터 Bronfman center, Montreal
사치 앤드 사치 개관전 Saatch & Saatch in NYC, 선화랑, 박여숙
화랑, 필립강갤러리, 예화랑, 대구 인당박물관, 부산아트센터

주요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삼성 리움미술관 대림미술관
인당미술관 자연사박물관 마크로젠



Himalayas

A Bird with Dhaulagiri Glacier



최동열, <A Bird with Dhaulagiri Glacier>
2017, oil on canvas, 227.3 × 181.8cm

Annapurna III & Gangapurna Glacier



최동열, <Annapurna III & Gangapurna Glacier>
2012-2013, oil on canvas, 130 × 162cm

Annapurna Range Chomrong



최동열, <Annapurna Range Chomrong>
2011, oil on linen, 69 × 89.5cm

Nude with Sunflowers in Chomrong



최동열, <Nude with Sunflowers in Chomrong>
2015, oil on canvas, 162 × 130cm

A Nude with Kanchenjunga at Sunrise



최동열, <A Nude with Kanchenjunga at Sunrise>
2015, oil on canvas, 162 × 130cm

Reclining nude & Annapurna II



최동열, <Reclining Nude & Annapurna II>
2012, oil on canvas, 130 × 162cm

Poppies with Kangchenjunga



최동열, <Poppies with Kangchenjunga>
2016, Encaustic on Wood, 97 × 130cm

Puppies with Dhaulagiri



최동열, <Puppies with Dhaulagiri>
2015, Encaustic on Wood, 100 × 80cm

Purple poppies with Dhaulagiri



최동열, <Purple Poppies with Dhaulagiri>
2015, Encaustic on Wood, 58.5 × 46cm

Still life



최동열, <Still life & Pandim>
2018, oil on canvas, 162 × 130cm

Sunflowers with Gangapurna Glacier



최동열, <Sunflowers with Gangapurna Glacier>
2015, Encaustic on Wood, 100 × 80cm

Nude & padum



최동열, <Nude & Padum>
2013-2014, Encaustic on Wood, 130 × 97cm

Wild rose and padum



최동열, <Wild Rose and Padum>
2013-2014, Encaustic on Wood, 130 × 97cm

Nude with Pandim in Yellow



최동열, <Nude with Pandim in Yellow>
2012, Encaustic on Wood, 58.5 × 46cm



Himalayas



A Bird with Machapuchare



최동열, <A Bird with Machapuchare>
2017, oil on canvas, 162 × 130cm

Poppies & Annapurna II



최동열, <Poppies & Annapurna II>
2012, oil on canvas, 130 × 97cm

Nude with Wild Roses and Valley of Photaksar, Ladakh



최동열, <Nude with Wild Roses and Valley of Photaksar, Ladakh>
2013-2014, Encaustic on Wood, 130 × 97cm

Poppies with Pandim



최동열, <Poppies with pandim>
2015, Encaustic on Wood, 100 × 80cm



SPACE OrangeHare

전시운영시간

2023.01.08 ~ 2023.02.29

매주 월요일 ~ 금요일 11:00 ~ 18:00 / 공휴일 및 주말 선약오픈

Address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 캠퍼스 2동 2층 스페이스 오렌지하어

Homepage

www.orangehare.io www.wave-i.com

Telephone

02 - 1600 - 7397